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사회학과	파견대학	Sciences Po Lille
파견기간	2학년 1학기	파견국가	프랑스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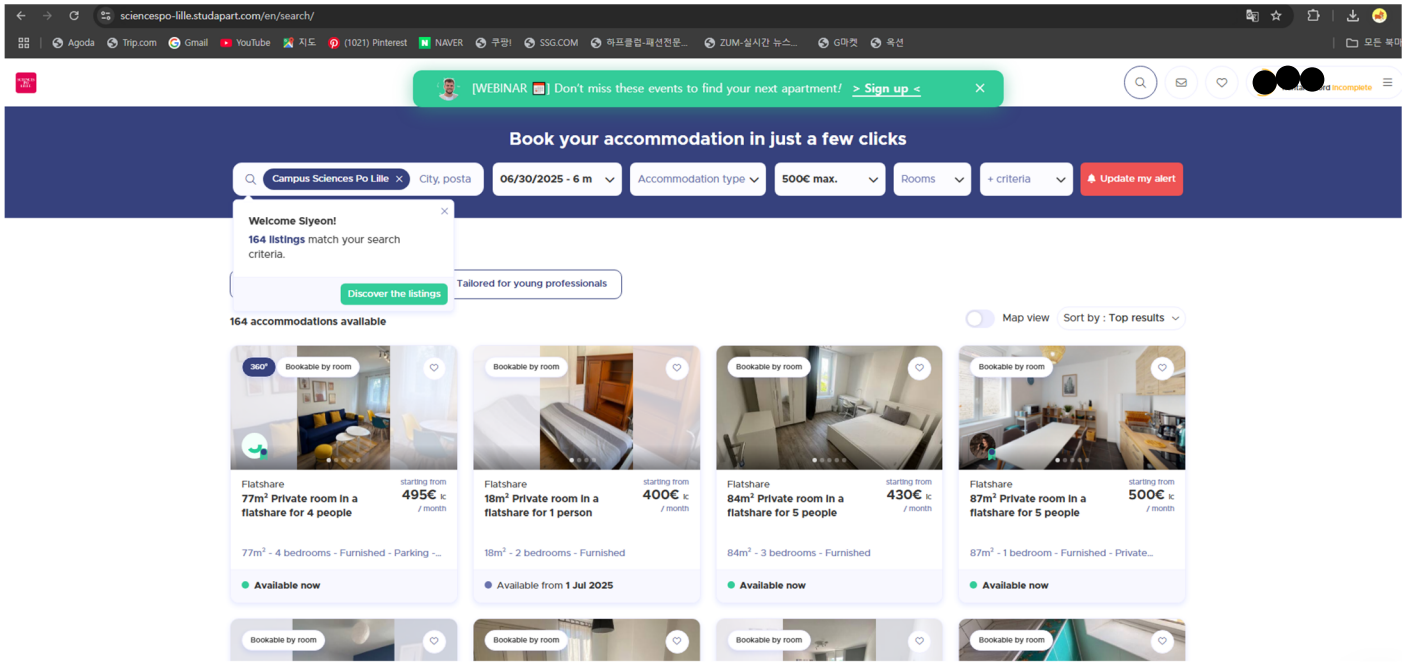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몇 주가 지나면 Sciences Po Lille에서 메일이 옵니다. 메일을 보시면 링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 작성 폼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학생증도 발급받고, 학생의 국적이나 비자와 집 계약 과정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cv같은 이력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에 국적 선택하는 란에서 한국이 선택이 안돼서 당황했는데 이런 오류가 있을 때마다 본교에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여담이지만 그냥 시스템 오류였었는데 모든 교환학생들이 다 본인의 국가를 선택 못했다고 해요). 사실 폼이 좀 일찍 나와서 비자랑 집 계약을 아직 못한 상태였는데, 이것도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비자는 대사관 1차 면접 이후 스탬프가 찍힌 입학 허가서로 제출을 했고, 집 계약은 학교에서 제공한 에이전시로 계약 가능한 매물 관리자랑 소통(studapart 사이트 이용해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건 아무래도 집 계약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ROUS라고 프랑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이걸 자리가 잘 안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개강하고 나서 학교 근처 CROUS에 한 자리가 났다고 했는데 2인 1실이기도 하고 원래 CROUS가 저렴한 가격이라 많이 선택하는 건데 그 기숙사는 일반 flatshare(각자 방이 있고 공용주방, 공용욕실 등을 이용하는 세어하우스 형태입니다. 가장 흔히 선택하는 방식이에요)랑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각 방이 있는 flatshare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옮기진 않았습니다. CROUS가 아니면 studapart라고 Sciences Po Lille에서 제휴하는 집 계약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로 계약을 했어요. 우선 본인이 원하는 집 형태를 미리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 공유하는 게 불편하면 월세가 좀 높더라도 아예 1인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1인 스튜디오는 세탁기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처 세탁방에 가야하는데 유럽 물가 아시겠지만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 10000원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flatshare로 선택했는데 3명에서 각방을 쓰고 거실과 주방, 욕실,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제 독립된 방이 있으니까 전혀 불편하진 않았어요. 거의 자취하는 느낌이란 비슷한데 스튜디오에 비해 가격도 합리적이라 플랫폼으로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랫폼이든 불화만 없으면 가장 편한 방식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집 거리도 중요합니다. 프랑스 릴은 워낙에 작은 도시라 오래 걸리진 않는데 저는 우선 역까지 15분을 걸어가야해서 조금 번거롭긴 했습니다. 지하철은 5분만 타면 됐고 republique beaux-arts역에서 학교까지는 8분 정도 또 걸어야 합니다. 또 집 근처가 우범 지역인지 아닌지도 중요 합니다. 릴로 교환학생을 오신다면 wazzemes, fives가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면 좋아요.

수강신청은 개강하기 한 달 전해야 하게 되는데요, 미리 시간표 짜보시고 겹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 제외하고는 한국 학교처럼 금방 마감되고 그런게 아니라 널널하니까 기한 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전공 교수님께 메일 드려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낸메일함 0 / 61

답장 전체답장 전달 다시보내기 삭제 이동 더보기

저는 현재 프랑스 Sciences Po Lille에 2025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 전 본교 교학팀에 교류교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수정 및 확인이 필요하여 연락드립니다.
 귀국 후 성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현재 수강 중인 과목 중 일부를 사회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현재 수강 중인 과목 목록이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목명: French Politics and Institutions
 - ECTS: 5
 - 예상 학점: 3학점
 - 이수 희망 구분: 전공 (사회학과)
 - 본교 대응 과목명: 정치사회학

과목명: How does ecology impact the family?
 - ECTS: 5
 - 예상 학점: 3학점
 - 이수 희망 구분: 전공 (사회학과)
 - 본교 대응 과목명: 환경사회학 또는 가족사회학

과목명: Space and Power
 - ECTS: 5
 - 예상 학점: 3학점
 - 이수 희망 구분: 전공 (사회학과)
 - 본교 대응 과목명: 공간과 일상의 사회학

과목명: Comparing attitude towards the EU
 - ECTS: 3
 - 예상 학점: 1학점
 - 이수 희망 구분: 전공 (사회학과)
 - 본교 대응 과목명: 세계지역연구

과목명: Apocalypse! The history and anthropology of the end of the world
 - ECTS: 5
 - 예상 학점: 3학점
 - 이수 희망 구분: 교양 (일반선택)

과목명: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 ECTS: 4
 - 예상 학점: 2학점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프랑스 학생 비자를 받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발되고 나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부터는 비자 발급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캠퍼스프랑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미리 pdf로 입학허가서와 개인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고 대사관 면접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교환학생 면접은 수요일에만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입학허가서 받자마자 바로 1차 면접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면접에서는 5명씩 한 방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영어로 질문을 받습니다. 프랑스어나 영어로 답변하면 되는데 저는 프랑스어는 구사를 못해서 영어로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왜 프랑스를 선택했는지, 가서 뭐가 가장 기대되는지,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 물어보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면접이니까 꼭 영어를 잘하는게 아니라도 답변만 하면 되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1차면접 이후에 스탬프가 찍힌 입학허가서를 받는데 2차 면접에서 이걸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 3일 뒤부터 예약할 수 있는데 예약 잡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서 1차면접 전에 미리 예약 해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10시 예약이었는데 9시55분에 도착했더니 면접실에 들어가는게 10시여야 한다고 안된다고 해서 한달이나 뒤로 다시 예약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사관 갈때 꼭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2차 면접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정말 많은데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니까 꼭 철저히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는 대사관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 프랑스 교환학생 준비절차 검색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차면접 이후엔 2-3주 사이에 여권에 학생비자가 부착되어 집에 택배로 도착합니다. 빠르면 한달, 느리면 두달은 걸리는 비자 발급 과정이니까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릴에는 pass pass라는 교통권이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통학해야 하면 한달치 끊는걸 추천드립니다. 학생 요금으로 1회로 하는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학생 요금으로 하려면 ilevia라고 릴 교통 회사 사무실에 방문해야 해요. 이 사무실은 Lille Flandres 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tgv max라고 해서 한달에 12만원 정도를 내면 프랑스 전역을 무료로 갈 수 있는 기차 이용권이 있는데 한번만 파리에 왕복으로 다녀와도 이득이니까 꼭 구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단 기차에 탈 때 꼭 여권을 들고 타야 합니다. 또 부이그텔레콤이라는 프랑스 통신사에서 현지 유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유럽 전역에서 100기가를 쓸 수 있고 한달에 20000원 정도 요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권은 저는 국내 저가항공사에서 파리에 가는 노선이 있어서 그거로 했는데 수하물 15kg추가 하는데만 24만원입니다. 짐 무게도 생각하셔서 항공권 예매하셔야 해요. isic라고 해서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유용합니다. 플릭스버스라고 유럽 전역을 도는 저가형 버스가 있는데 이것도 10-15% 할인 받을 수 있고, 항공권이 정말 좋은게 한국발 프랑스행 비행기를 20kg 수하물 2개를 무료로 추가해줍니다. 교환학생 가서 만난 지인은 이 방식으로 경유해서 항공권 정말 저렴하게 구매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파리 공항에서 릴로 가는 떼제베를 타고 왔는데, tgv max를 미리 끊어놓으시면 좋아요. 릴 플랑드르 역 도착해서는 우버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집앞에서 에이전시 직원을 만나서 열쇠를 받고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은 필수입니다. 제 방이 북향이고 라디에이터가 고장났어서 너무 추웠습니다. 혹시 더위를 많이 탄다면 프랑스에는 에어컨 있는 집도 별로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면접은 주한 프랑스대사관 내에 위치한 Campus France 에서 진행되며, 면접 시작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Campus France 면접 시 지참해야 할 준비 서류 : (미지참 시 대사관 입장이 불가하며 면접이 자동 취소됩니다.)

① 여권

② Etudes en France에 업로드한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 사본 (Attestation d'inscription/pré-inscription) (단, 교환(파견/방문) 학생들의 경우 제외).

③ Etudes en France에 업로드한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단, 교환(파견/방문) 학생들의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 France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이므로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LETTER OF ADMISSION

I, the undersigned, Professor Patrick Mardellat,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at Sciences Po Lille, certify that ●●●●● ●●●●, has been accepted to study at Sciences Po Lille, for the second semester the academic year 2024/25, as part of the student Bilateral exchange agreement between **Hallym University** and Sciences Po Lille, France.

●●●●● ●●●● will be required to be in our Institute from 09/01/2025 until 31/05/2025.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Patrick Mardellat
Lille, 21/10/2024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우선 A-F과목도 한국에서 pnp로 변환되니까 C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Sciences Po Lille의 기준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space and power 이었습니다. 국제학생 수업 코스 특성상 시험보다는 에세이 제출이 주된 평가 방식이었는데 이 시험은 에세이 분량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왔고, 주제도 교수님께 컨펌 받아야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결국 임의로 주제를 선정하고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보너스 질문이라고 해서 과제가 있었는데 이를 써가는 것도 조금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래도 수업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공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심리학,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인데 세계의 다양한 랜드마크나 장소들을 역사적 내용과도 결합해서 배워서 공간의 구조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how does ecology impact the family?수업은 팀별 발표와 보고서 제출이었는데, 조를 짜기도 힘들고 조원들과 만날 시간도 잡기가 힘들어서 결국 각자 ppt 슬라이드와 발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과 가족 관련된 지인을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해서 환경이 가족 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유럽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위축되었지만 준비한 대본을 읽으면서 교수님과 눈도 맞추고 슬라이드도 구조가 명확히 보이게끔 해서 캡션을 달아두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수업은 French politics and institution 입니다. 프랑스에 온만큼 프랑스 정치와 역사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고, Sciences Po인만큼 정치학으로 역사가 깊은 학교에서 정치학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수업 난이도도 높지 않았고, 출석과, 4개의 프랑스 역사 관련 기사를 보고 리뷰하는 과제와 프랑스 정치와 자신의 관심분야를 결합한 주제로 에세이를 쓰는 것이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위 수업들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님과 정말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수업 시간 도중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가 한국과 많이 달라서 인상깊었습니다. 프랑스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프랑스어 수업도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함

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보니 프랑스어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많이 위축되곤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배우니까 정말 재미있고 프랑스에서 살아가기가 조금은 더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수업이다보니 comparing attitudes towards EU라는 과목은 ects는 조금 낮았지만 eu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eu 소속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이 많아서 기본지식이 깔려있는 학생들과 수업을 듣는거라 깊게 대화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교수님이 제시한 에세이 질문 2개 중에 한개에 답변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선택한 질문은 eu 통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위기라면 어떤 점이 위기인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한국 군사력과 유럽의 군사력을 비교한 내용을 첨가해서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무난한 난이도의 수업입니다. 한 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종말론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종교적인 내용과도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이 수업도 출석 없이 에세이만으로 평가했는데, 저는 유럽과 미국의 종말론을 비교하는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가는게 아니다보니 편한 수업이었습니다. 모두 영어 수업이었고, 수업을 100%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최대한 흥미를 가지고 들으시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arch 2025 📅

	Tue	Wed	Thu	Fri
4	25	26	27	28
	11:30 AM IUP - Comparing attitudes towards the EU (S) DUSEIGNEUR Guillaume 010 Cours	12:00 PM IUP - How does ecology impact the family? (S) GAGNANT Anne 327 Cours	3:00 PM IUP - Français Langue Etrangère - Groupe 2 (S) DE ALMEIDA Cécile 423 Langue vivante 1	9:00 AM IUP - Apocalypse - the history and anthropology GRIBBEN Crawford 423 423 VISIO COURS EN VISIO
	4:00 PM IUP - Space and Power (Spring Semester) HABBARD Anne-Christine 129 - Germaine Tillion Cours	4:00 PM IUP - French Politics and Institutions (Spring S) ROBIN Léo 015 - La Boétie Cours		3:00 PM IUP - A practical insight on policy making in the SGARBI Federico 327 Cours
	6:30 PM 1A AGENDA 2A AGENDA 4A AGENDA (4 more...) AL MASSATI Omayma 129 - Germaine Tillion Métiers & Carrières			
3	4	5	6	7
	11:30 AM IUP - Comparing attitudes towards the EU (S) DUSEIGNEUR Guillaume 010 Cours	12:00 PM IUP - How does ecology impact the family? (S) GAGNANT Anne 230 Cours	3:00 PM IUP - Français Langue Etrangère - Groupe 2 (S) DE ALMEIDA Cécile 423 Langue vivante 1	9:00 AM IUP - Apocalypse - the history and anthropology GRIBBEN Crawford 423 423 VISIO COURS EN VISIO
	4:00 PM IUP - Space and Power (Spring Semester) HABBARD Anne-Christine 129 - Germaine Tillion Cours	4:00 PM IUP - French Politics and Institutions (Spring S) ROBIN Léo 015 - La Boétie Cours		3:00 PM IUP - A practical insight on policy making in the JOST Christophe 122 Cours
	6:30 PM 1A AGENDA 2A AGENDA 4A AGENDA (4 more...) LEBAS Catherine 129 - Germaine Tillion Métiers & Carrières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학교는 건물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긴 합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샌드위치나 요거트 등을 파는데 유럽 물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어서 한끼 때우기 좋습니다. 도서관은 수업 듣는 건물 옆건물인데 2층도 있어서 넓은 편이긴 하지만 워낙 그랑제꼴이다보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항상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에세이를 쓰러 도서관에 가면 간의의자에 앉았다가 자리가 나면 공부하러 가곤 했습니다. BDI라고 해서 국제학생들과 버디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도움을 주는 Sciences Po Lille 학생들 그룹이 있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Bdi 스태프인 학생들과 친해지면 정말 좋습니다. 버디 프로그램도 참여했는데 연결해주는 버디도 국제학생들 성격이랑 국적에 맞춰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는 친구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관심사도 많이 겹치고 말도 정말 잘통했고, 프랑스 생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오시면 버디 프로그램도 꼭 참여하시고 수업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는 BDI 멤버 중에 유난히 한국과 관련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국에 교환학생 왔던 친구, 한국에 교환학생 올 친구, 한국에 인턴 올 친구들도 많아


서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고 급속도로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버디 프로그램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BDI에서 릴 근처 프랑스 지역으로 여행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학생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Boulangerie Mathieu의 크루아상과 빵오쇼콜라가 진짜 맛있으니까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루에 그 빵집에서 크루아상 2개, 빵오쇼콜라 3개씩 거의 매일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근처에는 대한이라는 한식집이 있는데,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라 정말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한국인들끼리 가시면 서비스도 주십니다. 한식집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줄서서 먹길래 약간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쇼핑은 euralille에서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플랑드르 역까지 정말 가까워서 플랑드르 역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안에 대형 까르푸도 있고 유럽의 다이소같은 프리마크도 있어서 생필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까르푸가 다른 까르푸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구매하실 때는 꼭 여기로 방문하세요. 비유릴에도 정말 예쁜 거리들이 많습니다. 비유릴은 릴의 구시가지라는 뜻인데, 유럽에는 이렇게 구시가지 쪽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리보다 비유릴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골목이라 정말 볼만합니다. 파리로 떼제베로 1시간 거리에 있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릴의 국제학생들 친목 도모를 위해 이런저런 파티와 여행을 주최하는 단체입니다. EU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식적인 단체이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릴 학교들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또 정말 좋은 학생 복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linkee라는 단체의 음식 나눔 활동이었습니다. 미리 회원가입하고 신청한 후에 학생증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가면 다양한 식료품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단체가 아마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감자, 양파, 당근 등 진짜 많이 후하게 받았습니다. 청소용 물티슈랑 치약이랑 비누까지 주니까 꼭 지원하셔서 생필품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HEY!

Les inscriptions pour les distributions de la semaine du 23/06 sont ouvertes !



Pour récupérer ton colis alimentaire, il te suffit de t'inscrire avec ton adresse mail  via les liens ci-dessous et de te rendre à la distribution avec ton justificatif de scolarité (certificat d'inscription, carte étudiante, etc) et ton sac ! 😊



N'hésite pas à prendre un tupperware pour récupérer certains aliments ! 🍷

⚠️ ATTENTION : Linkee teste un nouveau système d'inscription !

Crée dès maintenant ton compte sur ta nouvelle plateforme et réserve ton panier pour les distributions du 26/06 à Paris 20ème!

Inscription / Registration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유럽이다보니 지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우선 기숙사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다보니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중개비 90만원 가량을 처음에 내고, 프랑스에서 집 계약을 하려면 보증인이 있어야해서 보증인 구하는 비용 30만원, 비자 40만원(비자 발급비에 체류증 발급비), 건강보험 40만원, 집 보험 15만원이었습니다. 기본 월세가 63만원 가량이었고 제가 살던 지역이 주요 거리에서 멀기도 하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서 정말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도 3만원씩 매달 나갔습니다. 통신비 2만원, 교통비는 한달권 6만원이었고, 기차 이용권 구독료가 12만원으로 고정지출은 80만원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3-4일 가량 다녀온다고 가정하면 숙소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해서 한 지역에 여행 가면 40-60만원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도 한번 파리에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거나 친구들이랑 외식하고 하다보면 금세 나가서 매번 다르지만, 외식비는 보통 3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좋고, 장을 봐서 파스타 등을 해먹으면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학기중에도 여행을 자주 다녀온다면 한달에 2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가게부 쓸 때마다 한국에서 쓰는 비용의 몇배는 되는 금액에 절망적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지만 이왕 간 김에 하고 싶은걸 포기하진 말자의 마인드로 지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기가 정말 눈치 보였지만 부모님도 가서 돈 문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오기보단 즐기고 오길 원해서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이 지원해주신건 사실입니다. 가기 전에 지출 계획을 미리미리 잘 세워서 계획적이고 현명한 소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잘 안돌려줍니다.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도 옆방 메이트들이 더럽힌걸 제게 청구해서 제가 보증금 까여서 받았습니다. 퇴거할 때 이런 점도 주의를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프랑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이 있는데 많진 않지만 받으려면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받은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가셔야하고, 파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 맡기셔야 합니다. 주택 보조금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2달 정도 기다렸더니 나왔어요.

영수증 2025년 5월
리옹, 2025년 5월 5일
2025-05-01부터 2025-05-31까지의 기간
참조: 59800-34RueDeL'egliseSaintLouis-3#1

34 Rue De L'eglise Saint-Louis Lille - Et. 3 - 채널 1(#3249)

	세금 포함 금액
임대료 05/2025	301.00 유로
요금 05/2025	74.00 유로
총	375.00유로

귀하의 지불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6. 자기평가 (분량: 1~2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교환학생은 단연코 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귀국한 이후에도 교환학생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돌아와서 가치관의 변화가 정말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는 사람 한명 없이 혼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의 나라에 내던져진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하고 막연해서 제가 해낼 수 있을거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에 붙은 이후로도, 행정 처리 과정만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까 수도 없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교환학생은 너무 좋은 기회라고, 너무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도착하고도 너무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친구들도 만들고, 적응을 하니 비로소 내가 정말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특별한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풍경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곳곳이 역사로 가득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여행다니면서 친해진 인생에 둘도 없을 한국인 단짝 친구들도 만났고, 프랑스 뿐만 아니라 각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전에는 여행이 경험이자 자산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니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꽂박혀있던 제 가치관이나 신념이 점점 변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혼자 생활하면서 얻은 생활 지식도 정말 많고, 자취하면서 누가 제 일을 대신 해주게 아니니까 독립심도 정말 많이 길렀습니다. 정말 큰 추억으로 남고 앞으로 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힐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일도 무지 많았습니다. 혼자 외국에 사는 것이라보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손해본 것도 많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행정 처리가 좀 늦은 편이기도 하고 제대로 된 원칙 등이 잘 잡혀있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 가

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할 말을 해야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니 손해보는 일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진상짓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라고 깠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는 정말 방심하지 마시고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가방을 바로 위에 올려놨다가 기차에서 도난 당해서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간 경우도 봤고, 휴대폰을 도난 당해서 당장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경우, 의자 뒤에 가방을 걸어놨다가 도난 당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소매치기를 주의하느라 받은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런 점 말고는 잘 지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혼자 이렇게 해외에서 살 수 있다는걸 느끼게 되니까 이제 어디를 가서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은 눈치보지 않고 다니니까 저를 맘껏 뽐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

전공 학점을 채워야해서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교환학생 지원 전에 유럽의 학교들을 쭉 검색해보고 교환학생 과목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제 전공 수업명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과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쭉 찾았습니다. 그중에 Sciences Po Lille이 정치학 중점의 학교이다보니 사회학과 융합된 과목도 많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게 되었고, 학기 중에 교수님께 제가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의들의 강의계획서를 메일로 보냈고 결국 10학점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